셀프리더십 전략이 학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한국과 중국 학생 비교연구

박기호†

요 약
본 연구는 셀프리더십 전략이 학생들의 학습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학습태도가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여 학업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였다. 특히 중국, 필리핀 등으로부터 국내로 유학 온 학생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과 한국학생간의 차이점 유무를 비교 연구하여 효과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설문연구를 위한 표본으로한국 대학생 64명과 유학중인 중국 대학생 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조직 구성원 혹은 학생들의 셀프리더십을 고양함으로써 과업에 임하는 태도나 수업에 임하는 바람직한 태도를 제시하여 기업 생산성이나 학업성과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수립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행위중심전략, 건설적 사고전략, 자연보상전략, 셀프리더십

A Study on the Influence between Self-leadership Strategies and Learning Performance at IT Classes mediated by Attitude of Attendance: Comparative Research between Korea and China

Ki-Ho Park†

ABSTRACT
Recently concept of self-leadership that leads one’s own activities toward right direction through self-control or self-management has been being focused on practices as well as academia.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between self-leadership strategies and learning performance at IT classes mediated by attitude of attendance focused on the social science students at an university. This study performed the comparative study to investigate whether differences among Korean(64 samples) and Chinese(31 samples) students is or not. Research results can give us right direction of task-taking attitudes in firms or learning attitudes in teaching organization and implications to human resource managers who are in charge of improving learning performance or productivity.

Key Words : Behavior-Focused Strategy, Constructive Thought Strategy, Natural-Reward Strategy, Self-Leadership

† 호서대학교 디지털비즈니스학부, 부교수(교신저자)
논문접수: 2011년 11월 6일, 1차 수정을 거쳐, 실사완료: 2011년 12월 7일
* 본 논문은 2011년도 호서대학교의 재단으로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과제#: 2011-0118)
1. 서론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스스로 관리하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는 셰프리더십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종래에는 조직을 이끌어 가기 위해 발휘하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는 리더 그룹에 대한 리더십(leadership)이 강조되어 왔다면 최근에는 개인의 리더십이란 할 수 있는 셰프리더십이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15],[20],[22]. 산업 계뿐만 아니라 학계 등에서는 리더십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는 조직 내 리더들의 리더십 유행에 따라 조직의 성격과 문화가 달라지며, 생산성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1],[2],[14]. 따라서 리더십과 관련한 많은 연구들은 경영학 분야뿐만 아니라 교육학, 사회학, 삼업심리 등에 다양한 분야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전형적으로 리더십이라는 용어는 조직 내 경영진이나 팀리더 등의 조직적직원들에게 강조되는 조직동를 및 관리 역량이라는 개념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개인의 자유의지를 스스로 자기통제 혹은 관리하여 자신의 행동을 바탕한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셰프리더십(self-leadership) 관련 연구가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3],[8]. 셰프리더십의 발전은 어려운 과제가 주어질수록 적절한 자기통제와 관리로써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선형 연구를 기초로 하였다[5],[6],[18],[22].

본 연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국내외 유학중인 외국학생과 한국 학생들의 그 특성의 차이를 통해 실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결과는 학습성과 향상을 위한 동기부여 프로그램 마련이나 기업의 업무효과 배가를 위한 방안 마련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셰프리더십 전략

셰프리더십은 스스로에 대한 독립성, 자주성을, 주어진 직무 혹은 과제수행에 대한 자발적 만족감, 자기 효능감, 창의적이고 혁신적 사고의 자기고양 등의 요인에 근거한 영향을 미친다[7],[18],[22]. 특히 자기 효능감은 특정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기대와 신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8],[9],[11].

가설1(H1): 셰프리더십의 정도가 높을수록 학습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H2): 학습태도의 정도가 높을수록 학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H3): 셰프리더십 정도가 높을수록 학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1 자연보상전략

자연보상전략은 특정 과업이나 행위로부터 증가을 느낄수록 보상을 받거나 동기부여가 되는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전략이다[16],[18]. 즉 자연보상전략은 과업수행을 통해 추가적인 증가를 기쁨을 느낄수록 과업수행 자체가 자연적 보상이 되도록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데도 유리하지 않은 일에는 관심을 별다리려고 하면서 과업에 내재한 보상을 기대하려고 하는 것이다[4],[10].

가설1.1(H1-1): 자연보상전략을 지향하는 학습자일수록 비전수립정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2(H1-2): 자연보상전략을 지향하는 학습자일수록 자기노력정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3(H1-3): 자연보상전략을 지향하는 학습자일수록 성과기대정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2 행위중심적 전략


가설1.1(H1-4): 행위중심전략을 지향하는 학습자일수록 비전수립정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1(H1-5): 행위중심전략을 지향하는 학습자일수록 비전수립정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수록 자기노력정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6(H1-6): 행동 중심전략을 지향하는 학습자 일수록 성과가정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3 건설사유전략

건설사유전략은 성과에 정적 영향을 미치도록 사고하는 습관과 건설적으로 사고하도록 의도하는 전략이다[16][19][21]. 건설적 사고란 비합리적 신뢰와 부정적 가정을 광범위한 자기선택(self-talk)이나 정신적 상상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정신적인 심상은 실제 행동으로 발현되기 이전에 특정한 경험이나 과정에 대한 술은 인식의 세계를 할 수 있다. 과정을 수행하기 이전에 성공적인 성과를 확신하는 개인일수록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실제 과정에 직면하였을 때 훨씬 더 성공적으로 완료한다[16][25].

가설1-7(H1-7): 건설사유전략을 지향하는 학습자 일수록 비전수립정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8(H1-8): 건설사유전략을 지향하는 학습자 일수록 자기노력정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9(H1-9): 건설사유전략을 지향하는 학습자 일수록 성과가정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셀프리더십, 태도와 성과

셀프리더십은 개인의 독립성, 정정적인 정서, 직무에 대한 만족, 자기 효능감, 그리고 개인의 성과에 정정적인 영향을 미친다[5][15][18][22]. 셀프리더십은 주로 학생의 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선형단계의 결과를 이끌어 온 순서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조건 조사는 구성원들의 셀프리더십이 조직성과 성과와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20][22][26].

조직 구성원이 아닌 개인의 경우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독립성, 정정적인 정서, 학업에 대한 만족도, 자기 효능감 등의 셀프리더십 구성요소들이 높은 정도를 보일 경우 학업성과에 정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개인이 과업에 투입하는 태도와 과업에 대한 의무감 혹은 성취에 대한 즐거움 등의 태도가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14].

가설2-1(H2-1): 미래비전수립의 명확도가 높을수록 학업성과가 높을 것이다.
가설2-2(H2-2): 자기노력의 정도가 높을수록 학업성과가 높을 것이다.

가설2-3(H2-3): 성과기대의 정도가 높을수록 학업성과가 높을 것이다.

집단에 속한 구성원들은 집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인 목표를 설정해내고, 이의 달성을 위해 집단 구성원들과의 협력과 자기 스스로의 관리능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타 단위의 과업목표 관리의 경우 조직 내 속한 구성원 개개인의 업무에 임하는 태도와 사고방식, 타 발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 타의 발전과 자신의 발전사이의 격차 등에 대한 것들 요인이 대표될 수가 많다.

가설3-1(H3-1): 자연교사성역전략의 정도가 높을수록 학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2(H3-2): 행동성역전략의 정도가 높을수록 학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3(H3-3): 건설사유전략의 정도가 높을수록 학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4(H4): 학습태도를 배개변인으로 한 셀프리더십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변수는 한국과 중국 학습자간 차이를 보일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앞서 서술된 가설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다.

3.2 연구대상 및 분석방법

설문응답자들은 이공계 학생들이 아닌 문과에 속하였으며, 이공계 학생들이 미리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 응답자들은 설문 조사상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응답에 참여한 응답은 총 95명으로 한국학생 64명, 중국학생 3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강과목은 경영통제학이었고, 1학년 학생들 이었다.

3.3 측정도구 및 조작적 정의

설문지의 문항은 Manz(1985)의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설문지에 대한 응답자들의 이해도를 높이
기 위하여 문구를 연구대상에 적합하도록 수정 보완하였다. 각 문항의 측정척도는 Likert 5점척도를 사용하였다. 총속변수인 학업성과는 중간교사와 기말교사 점수를 백점으로 환산하여 분석하였다.

3.4 신뢰성과 타당성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을 위해 요인추출법은 주성분분석으로 하였으며, 요인의 회전은 밸리맥스법을 적용하였다.

<표 1> 회전된 성분행렬

<table>
<thead>
<tr>
<th>구분</th>
<th>변수</th>
<th>항목</th>
<th>요인적재량</th>
<th>Cronbach Alpha</th>
</tr>
</thead>
<tbody>
<tr>
<td>한국</td>
<td>BF</td>
<td>S14</td>
<td>0.6762</td>
<td>0.6615</td>
</tr>
<tr>
<td></td>
<td></td>
<td>S9</td>
<td>0.6538</td>
<td></td>
</tr>
<tr>
<td></td>
<td>CT</td>
<td>S20</td>
<td>0.7833</td>
<td>0.6847</td>
</tr>
<tr>
<td></td>
<td></td>
<td>S20</td>
<td>0.7822</td>
<td></td>
</tr>
<tr>
<td></td>
<td></td>
<td>S22</td>
<td>0.6273</td>
<td></td>
</tr>
<tr>
<td></td>
<td>NR</td>
<td>S26</td>
<td>0.7256</td>
<td>0.6988</td>
</tr>
<tr>
<td></td>
<td></td>
<td>S21</td>
<td>0.7842</td>
<td></td>
</tr>
<tr>
<td></td>
<td>VSN</td>
<td>A31</td>
<td>0.8568</td>
<td>0.6947</td>
</tr>
<tr>
<td></td>
<td></td>
<td>A33</td>
<td>0.8171</td>
<td></td>
</tr>
<tr>
<td></td>
<td></td>
<td>A32</td>
<td>0.7576</td>
<td></td>
</tr>
<tr>
<td></td>
<td></td>
<td>A34</td>
<td>0.8323</td>
<td></td>
</tr>
<tr>
<td></td>
<td></td>
<td>A35</td>
<td>0.7511</td>
<td></td>
</tr>
<tr>
<td></td>
<td></td>
<td>A36</td>
<td>0.7188</td>
<td></td>
</tr>
<tr>
<td></td>
<td>EXP</td>
<td>A38</td>
<td></td>
<td>0.8416</td>
</tr>
</tbody>
</table>

| 중국 | BF   | S10  | 0.8305     | 0.8351         |
|      |      | S15  | 0.7535     |                |
|      |      | S13  | 0.7152     |                |
|      |      | S9   | 0.6220     |                |
|      |      | S12  | 0.6020     |                |
|      | CT   | S25  | 0.8255     | 0.6239         |
|      |      | S22  | 0.8041     |                |
|      |      | S19  | 0.8362     | 0.7894         |
|      |      | S24  | 0.8220     |                |
|      | VSN  | A31  | 0.9196     | 0.7283         |
|      |      | A33  | 0.7594     |                |
|      |      | A32  |            |                |
|      |      | A34  |            |                |
|      |      | A35  |            |                |
|      |      | A36  |            |                |
|      |      | A37  |            |                |
|      | EXP  | A38  |            | 0.5130         |

- 요인추출방법: 주성분분석법, 회전방법: Kaiser정규화가 있는 벌리맥스법
- BF-행위중심 전략, CT-건설사유 전략, NR-자연보상 전략, VSN-비전명확성, SEF-자기 노력, EXP-성과기대치
4. 연구결과

4.1 변인간 상관관계

셀프리더십 전략과 학습태도, 그리고 학업성과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한국과 중국공통으로 통합셀프리더십(TSLP) 변인과 통합학습태도(TATT)와는 정의 상관을 보였으나 한국학생자의 경우 통합학습태도와 성과간 정의 상관을 보인 반면 중국학생자의 경우는 유의미 하지 않았다.

<table>
<thead>
<tr>
<th>구분</th>
<th>변수</th>
<th>성과</th>
<th>CT</th>
<th>BF</th>
<th>NR</th>
<th>SEF</th>
<th>VSN</th>
<th>EXP</th>
<th>TSLP</th>
</tr>
</thead>
<tbody>
<tr>
<td>한국</td>
<td>CT</td>
<td>0.185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BF</td>
<td>0.1011</td>
<td>0.0169</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NR</td>
<td>0.0163</td>
<td>0.2384</td>
<td>0.026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SEF</td>
<td>0.1344</td>
<td>0.0083</td>
<td>0.0702</td>
<td>0.1196</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VSN</td>
<td>0.0214</td>
<td>0.3308**</td>
<td>0.0137</td>
<td>0.6439**</td>
<td>0.1806</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EXP</td>
<td>0.222**</td>
<td>0.0877</td>
<td>0.1390</td>
<td>0.2957</td>
<td>0.2817</td>
<td>0.1900</td>
<td></td>
<td></td>
</tr>
<tr>
<td></td>
<td>TSLP</td>
<td>0.0369</td>
<td>0.6415**</td>
<td>0.3623**</td>
<td>0.6578</td>
<td>0.1006</td>
<td>0.5033**</td>
<td>0.2543*</td>
<td></td>
</tr>
<tr>
<td></td>
<td>TATT</td>
<td>0.2613*</td>
<td>0.1828</td>
<td>0.1128</td>
<td>0.5330**</td>
<td>0.5900**</td>
<td>0.6829**</td>
<td>0.7554**</td>
<td>0.4335**</td>
</tr>
<tr>
<td>중국</td>
<td>CT</td>
<td>0.0573</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BF</td>
<td>0.3255</td>
<td>0.3430</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NR</td>
<td>0.1473</td>
<td>0.2747</td>
<td>0.0514</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SEF</td>
<td>0.3961*</td>
<td>0.3882*</td>
<td>0.4474*</td>
<td>0.1178</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VSN</td>
<td>0.3067</td>
<td>0.3945</td>
<td>0.2948</td>
<td>0.3511</td>
<td>0.1905</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EXP</td>
<td>0.3127</td>
<td>0.1040</td>
<td>0.3607</td>
<td>0.1015</td>
<td>0.3887*</td>
<td>0.1009</td>
<td></td>
<td></td>
</tr>
<tr>
<td></td>
<td>TSLP</td>
<td>0.0410</td>
<td>0.7770**</td>
<td>0.6390**</td>
<td>0.6670**</td>
<td>0.4486*</td>
<td>0.4331*</td>
<td>0.1140</td>
<td></td>
</tr>
<tr>
<td></td>
<td>TATT</td>
<td>0.1970</td>
<td>0.4022**</td>
<td>0.5120**</td>
<td>0.1912</td>
<td>0.8000**</td>
<td>0.5399**</td>
<td>0.6212**</td>
<td>0.5197**</td>
</tr>
</tbody>
</table>

* p<0.05, ** p<0.01, BF-행동중심전략, CT-건전치적사유전략, NR-자연보상전략, VSN-비전상황, SEF- 자기노력, EXP-성과기대치, TSLP=CT-BF+NR, TATT=VSN+SEF+EXP

4.2 셀프리더십과 학습태도

통합셀프리더십과 통합학습태도간 단순회귀분석 결과 양국 학습자 모두 상호 작용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1(H1)이 제한되었다. 회귀모형의 설명력(R2)는 각각 .188(18.8%)과 .270(27%)이었다.

<table>
<thead>
<tr>
<th>구분</th>
<th>모형</th>
<th>비표준화 계수</th>
<th>표준화 계수</th>
<th>계수바апример</th>
<th>t</th>
</tr>
</thead>
<tbody>
<tr>
<td>한국</td>
<td>(상수)</td>
<td>1.4900</td>
<td>0.4342</td>
<td>3.4533***</td>
<td></td>
</tr>
<tr>
<td></td>
<td>TSLP</td>
<td>0.4932</td>
<td>0.1302</td>
<td>0.4335</td>
<td>3.7877***</td>
</tr>
<tr>
<td>중국</td>
<td>(상수)</td>
<td>1.9532</td>
<td>0.5750</td>
<td>3.3970**</td>
<td></td>
</tr>
<tr>
<td></td>
<td>TSLP</td>
<td>0.5808</td>
<td>0.1538</td>
<td>0.5197</td>
<td>3.2758**</td>
</tr>
</tbody>
</table>

*p<0.01, ** p<0.001, 종속변수: TATT=SEF+VSN+EXP, TSLP=BF+NR+CT

4.2.1 셀프리더십과 미래비전수립

비전수립의 명확성 정도를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의 귀무가설은 H0: β1 = 0이며, 대립가설 (H1)은 '회귀계수 β가 모두 0(zero)은 아니다'로 설 정하였다. 다중회귀분석결과 한국학생자의 경우 회귀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2 = .437 (43.7%)의 설명력을 보였다. 셀프리더십 전략각 본질성과학습과 비전수립간 유의미 하였다. 따라서 가설 H1-1은 채택되었으나 H1-4, 1-7은 기각되었다. 중국학생자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변인은 없어 H1-1, 1-4, 1-7 모두 기각되었다. 공차관계는 모두 0.1이하, VIF는 모두 10.0이하로서 변수들간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었다.

4.2.2 셀프리더십과 자기노력

학습태도중 자기노력을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결과 한국학생자의 경우는 셀프리더십과 자기 노력간에는 유의미하지 않은 반면 중국학생자의 경우는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R2 = .263 로 26.3%의 설명력을 보였다. 그러나 양국 학습자 모두 개별 셀프리더십 전략과 자기노력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H1-2, 1-5, 1-8은 기각되었다.
4.2.3 셀프리더십과 성과기대

학습태도중 성과기대의 정도는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결과 한국학생자의 경우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R^2 = 0.110$로 11%의 설명력을 보였다. 성과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는 자연보상변인이 있다. III-3은 제외되었으나 I-6, 1-9는 기각되었다. 그러나 중국학생자의 경우는 성과기대와 유의미한 셀프리더십 변인은 없어 III-3, 1-6, 1-9는 기각되었다.

4.3 학습태도와 학업성과

<table>
<thead>
<tr>
<th>부문</th>
<th>변수</th>
<th>모형</th>
<th>비표준화 계수</th>
<th>표준화 계수</th>
<th>$t$</th>
<th>공선성 통계량</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d>B</td>
<td>표준오차</td>
<td></td>
<td>공차관계 VIF</td>
</tr>
<tr>
<td>한국</td>
<td>VSN</td>
<td>(상수)</td>
<td>0.3721</td>
<td>0.5462</td>
<td>0.6813</td>
<td>0.9133 1.0948</td>
</tr>
<tr>
<td></td>
<td></td>
<td>CT</td>
<td>0.1632</td>
<td>0.1919</td>
<td>0.1546</td>
<td>1.5925 0.8960</td>
</tr>
<tr>
<td></td>
<td></td>
<td>BF</td>
<td>0.2011</td>
<td>0.1919</td>
<td>0.1546</td>
<td>1.5925 0.8960</td>
</tr>
<tr>
<td></td>
<td></td>
<td>NR</td>
<td>0.7143</td>
<td>0.1919</td>
<td>0.1546</td>
<td>1.5925 0.8960</td>
</tr>
<tr>
<td></td>
<td></td>
<td>(상수)</td>
<td>2.7010</td>
<td>0.5462</td>
<td>0.6813</td>
<td>0.9133 1.0948</td>
</tr>
<tr>
<td></td>
<td>SEF</td>
<td>CT</td>
<td>-0.0446</td>
<td>0.0270</td>
<td>0.0597</td>
<td>0.9093 1.0948</td>
</tr>
<tr>
<td></td>
<td></td>
<td>BF</td>
<td>0.0055</td>
<td>0.0270</td>
<td>0.0597</td>
<td>0.9093 1.0948</td>
</tr>
<tr>
<td></td>
<td></td>
<td>NR</td>
<td>0.1118</td>
<td>0.0270</td>
<td>0.0597</td>
<td>0.9093 1.0948</td>
</tr>
<tr>
<td></td>
<td></td>
<td>(상수)</td>
<td>1.7288</td>
<td>0.0270</td>
<td>0.0597</td>
<td>0.9093 1.0948</td>
</tr>
<tr>
<td></td>
<td>EXP</td>
<td>CT</td>
<td>-0.0751</td>
<td>0.0270</td>
<td>0.0597</td>
<td>0.9093 1.0948</td>
</tr>
<tr>
<td></td>
<td></td>
<td>BF</td>
<td>0.1398</td>
<td>0.0270</td>
<td>0.0597</td>
<td>0.9093 1.0948</td>
</tr>
<tr>
<td></td>
<td></td>
<td>NR</td>
<td>0.2010</td>
<td>0.0270</td>
<td>0.0597</td>
<td>0.9093 1.0948</td>
</tr>
<tr>
<td></td>
<td></td>
<td>(상수)</td>
<td>0.2004</td>
<td>0.0270</td>
<td>0.0597</td>
<td>0.9093 1.0948</td>
</tr>
<tr>
<td>한국</td>
<td>VSN</td>
<td>CT</td>
<td>-0.0904</td>
<td>0.0270</td>
<td>0.0597</td>
<td>0.9093 1.0948</td>
</tr>
<tr>
<td></td>
<td></td>
<td>BF</td>
<td>0.2590</td>
<td>0.0270</td>
<td>0.0597</td>
<td>0.9093 1.0948</td>
</tr>
<tr>
<td></td>
<td></td>
<td>NR</td>
<td>0.1371</td>
<td>0.0270</td>
<td>0.0597</td>
<td>0.9093 1.0948</td>
</tr>
<tr>
<td></td>
<td></td>
<td>(상수)</td>
<td>0.8935</td>
<td>0.0270</td>
<td>0.0597</td>
<td>0.9093 1.0948</td>
</tr>
<tr>
<td></td>
<td>SEF</td>
<td>CT</td>
<td>0.0023</td>
<td>0.1769</td>
<td>0.0303</td>
<td>0.7083 0.9225</td>
</tr>
<tr>
<td></td>
<td></td>
<td>BF</td>
<td>0.0599</td>
<td>0.1769</td>
<td>0.0303</td>
<td>0.7083 0.9225</td>
</tr>
<tr>
<td></td>
<td></td>
<td>NR</td>
<td>0.2394</td>
<td>0.1769</td>
<td>0.0303</td>
<td>0.7083 0.9225</td>
</tr>
<tr>
<td></td>
<td></td>
<td>(상수)</td>
<td>3.8860</td>
<td>1.0834</td>
<td>1.0941</td>
<td>0.8960 1.2538</td>
</tr>
<tr>
<td></td>
<td>EXP</td>
<td>CT</td>
<td>-0.1247</td>
<td>0.2186</td>
<td>0.2487</td>
<td>1.2688 0.8804</td>
</tr>
<tr>
<td></td>
<td></td>
<td>BF</td>
<td>0.2770</td>
<td>0.2186</td>
<td>0.2487</td>
<td>1.2688 0.8804</td>
</tr>
<tr>
<td></td>
<td></td>
<td>NR</td>
<td>0.0682</td>
<td>0.2186</td>
<td>0.2487</td>
<td>1.2688 0.8804</td>
</tr>
</tbody>
</table>

*p<0.05, **p<0.01

<표 5> 통합학습태도와 성과간 회귀모형

<table>
<thead>
<tr>
<th>구분</th>
<th>모형</th>
<th>비표준화 계수</th>
<th>표준화 계수</th>
<th>$t$</th>
<th>공선성 통계량</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B</td>
<td>표준오차</td>
<td></td>
<td>공차관계</td>
</tr>
<tr>
<td>한국</td>
<td>TATT</td>
<td>(상수)</td>
<td>15.7564</td>
<td>12.3399</td>
<td>1.2670</td>
</tr>
<tr>
<td></td>
<td></td>
<td>8.3633</td>
<td>3.5763</td>
<td>0.2613</td>
<td>2.1318*</td>
</tr>
<tr>
<td>한국</td>
<td>TATT</td>
<td>(상수)</td>
<td>-1.0273</td>
<td>32.8235</td>
<td>-0.0327</td>
</tr>
<tr>
<td></td>
<td></td>
<td>9.2134</td>
<td>8.5166</td>
<td>0.1970</td>
<td>1.0818</td>
</tr>
</tbody>
</table>

*p<0.05, 종속변수: 성과

<표 6> 학습태도 변인과 성과간 회귀모형

<table>
<thead>
<tr>
<th>구분</th>
<th>모형</th>
<th>비표준화 계수</th>
<th>표준화 계수</th>
<th>$t$</th>
<th>공선성 통계량</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B</td>
<td>표준오차</td>
<td></td>
<td>공차관계</td>
</tr>
<tr>
<td>한국</td>
<td>TATT</td>
<td>(상수)</td>
<td>19.5425</td>
<td>13.1160</td>
<td>1.4900</td>
</tr>
<tr>
<td></td>
<td></td>
<td>2.6704</td>
<td>3.4964</td>
<td>0.0962</td>
<td>0.7630 0.9560 1.0768</td>
</tr>
<tr>
<td>한국</td>
<td>TATT</td>
<td>(상수)</td>
<td>-0.9894</td>
<td>2.6737</td>
<td>-0.0465</td>
</tr>
<tr>
<td></td>
<td></td>
<td>5.7115</td>
<td>2.3124</td>
<td>0.3116</td>
<td>2.47* 0.928 1.0768</td>
</tr>
</tbody>
</table>

*p<0.05, 종속변수: 성과
4.4 셀프리더십과 학업성과

셀프리더십 측정 항목의 합을 구하여 셀프리더십을 하나의 변인으로 하고, 학업성과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표 7> 통합셀프리더십과 성과간 회귀모형

<table>
<thead>
<tr>
<th>구분</th>
<th>모형</th>
<th>비표준화 계수</th>
<th>표준화계수</th>
<th>t</th>
<th>B</th>
<th>표준오차</th>
</tr>
</thead>
<tbody>
<tr>
<td>한국</td>
<td>(상수)</td>
<td>45.9998</td>
<td>13.2556</td>
<td>3.0153**</td>
<td>43.0944</td>
<td>13.2556</td>
</tr>
<tr>
<td>TSLP</td>
<td>-1.3956</td>
<td>4.5655</td>
<td>-0.0369</td>
<td>-0.2005</td>
<td>4.5655</td>
<td>4.5655</td>
</tr>
<tr>
<td>중국</td>
<td>TSLP</td>
<td>1.8572</td>
<td>8.4147</td>
<td>0.041</td>
<td>1.8572</td>
<td>8.4147</td>
</tr>
</tbody>
</table>

**p<0.01, 종속변수: 성과

셀프리더십전략을 독립변수로 하고, 학업성과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국 모두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셀프리더십전략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셀프리더십이 직접적으로 성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8> 셀프리더십과 성과간 회귀모형

<table>
<thead>
<tr>
<th>구분</th>
<th>모형</th>
<th>비표준화 계수</th>
<th>표준화계수</th>
<th>t</th>
<th>B</th>
<th>표준오차</th>
</tr>
</thead>
<tbody>
<tr>
<td>한국</td>
<td>(상수)</td>
<td>46.1854</td>
<td>15.1342</td>
<td>3.0324**</td>
<td>46.1854</td>
<td>15.1342</td>
</tr>
<tr>
<td>CT</td>
<td>-5.0180</td>
<td>3.3965</td>
<td>-2.0000</td>
<td>-1.5162</td>
<td>3.3965</td>
<td>3.3965</td>
</tr>
<tr>
<td>BF</td>
<td>2.1241</td>
<td>2.5424</td>
<td>0.1053</td>
<td>0.8355</td>
<td>2.5424</td>
<td>2.5424</td>
</tr>
<tr>
<td>NR</td>
<td>1.0191</td>
<td>3.0207</td>
<td>0.0445</td>
<td>0.2374</td>
<td>3.0207</td>
<td>3.0207</td>
</tr>
<tr>
<td>중국</td>
<td>(상수)</td>
<td>12.2301</td>
<td>30.8006</td>
<td>0.2971</td>
<td>12.2301</td>
<td>30.8006</td>
</tr>
<tr>
<td>NR</td>
<td>-3.6715</td>
<td>5.4485</td>
<td>-0.1243</td>
<td>-0.6729</td>
<td>5.4485</td>
<td>5.4485</td>
</tr>
<tr>
<td>BF</td>
<td>13.1334</td>
<td>6.4345</td>
<td>0.3633</td>
<td>2.0441</td>
<td>6.4345</td>
<td>6.4345</td>
</tr>
<tr>
<td>CT</td>
<td>-4.8788</td>
<td>6.1211</td>
<td>-0.1579</td>
<td>-0.7862</td>
<td>6.1211</td>
<td>6.1211</td>
</tr>
</tbody>
</table>

종속변수: 성과

### <표 14> 기술검정과 요약표

<table>
<thead>
<tr>
<th>변수</th>
<th>가설</th>
<th>제목여부</th>
</tr>
</thead>
<tbody>
<tr>
<td>한국</td>
<td>중국</td>
<td></td>
</tr>
<tr>
<td>H1</td>
<td>TSLP → TATT</td>
<td>채택</td>
</tr>
<tr>
<td>H1-1</td>
<td>NR → VSN</td>
<td>채택</td>
</tr>
<tr>
<td>H1-2</td>
<td>NR → SEF</td>
<td>기각</td>
</tr>
<tr>
<td>H1-3</td>
<td>NR → EXP</td>
<td>채택</td>
</tr>
<tr>
<td>H1-4</td>
<td>BF → VSN</td>
<td>기각</td>
</tr>
<tr>
<td>H1-5</td>
<td>BF → SEF</td>
<td>기각</td>
</tr>
<tr>
<td>H1-6</td>
<td>BF → EXP</td>
<td>기각</td>
</tr>
<tr>
<td>H1-7</td>
<td>CT → VSN</td>
<td>기각</td>
</tr>
<tr>
<td>H1-8</td>
<td>CT → SEF</td>
<td>기각</td>
</tr>
<tr>
<td>H1-9</td>
<td>CT → EXP</td>
<td>기각</td>
</tr>
<tr>
<td>H2</td>
<td>TATT → PERF</td>
<td>채택</td>
</tr>
<tr>
<td>H2-1</td>
<td>VSN → PERF</td>
<td>기각</td>
</tr>
<tr>
<td>H2-2</td>
<td>SEF → PERF</td>
<td>기각</td>
</tr>
<tr>
<td>H2-3</td>
<td>EXP → PERF</td>
<td>기각</td>
</tr>
<tr>
<td>H3</td>
<td>TSLP → PERF</td>
<td>기각</td>
</tr>
<tr>
<td>H3-1</td>
<td>NR → PERF</td>
<td>기각</td>
</tr>
<tr>
<td>H3-2</td>
<td>BF → PERF</td>
<td>기각</td>
</tr>
<tr>
<td>H3-3</td>
<td>CT → PERF</td>
<td>기각</td>
</tr>
<tr>
<td>H4</td>
<td>영국간 차이</td>
<td>채택</td>
</tr>
</tbody>
</table>

5. 결론

본 연구의 목표는 학습자 개인의 셀프리더십 전략 유형과 학습태도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함으로써 바람직한 학습태도를 위해서 가져야 하는 셀프리더십전략을 개발하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아울러 학습태도와 학업성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학업성과를 높이기 위한 학습태도를 유도하고자 한다. 또한 이 같은 연구 결과는 학습자들의 학업성과 증대를 위한 학습전략개발방법론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학습자개인은 지향하는 셀프리더십전략과 학습태도간 인과관계를 실증 분석한 결과 적절, 통합적 관점에서 셀프리더십 수준을 높일 경우 학습태도가 좋아지고, 이를 통해 학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과 중국 학습자 간 개별 변인들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한국학생들 의 경우 자연보상의 정도가 높은 경우 학업성과에 대한 기대가 높고 성과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질 경우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 학습자들의 경우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의해 성과가 높이 나타났다. 셀프, 학업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학생의 경우 자연보상전략 즉 학습과정...
울 통해 추가적인 증거와 기쁨을 느낄 수로서 학업 수행 자체가 자연적 보상이 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중국학습자의 경우에는 셀프프레딕스 프로그램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과 자기 노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었다.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본 연구가 특정 대학의 학부생을 대상으로 실증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사회과학대학 소속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표본의 범위가 한정적이었다.

참 고 문 헌


박 기 호

1986 부산대학교 재산동계학과 (이학사)
1988 한양대학교 대학원 (공학석사)
2004 한양대학교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박사)
2005-현재: 호서대학교 디지털비즈니스학과 조교수

관리분야: 정보시스템 평가 및 라이프사이클, 프로젝트관리, 시스템설계

E-Mail: khpark@hoseo.edu